

심플랫폼 (444530)

피지컬 AI의 숨겨진 진주

2026년 5월 28일

✓ 투자판단	Not Rated	✓ 목표주가	-
✓ 상승여력	-	✓ 현재주가 (5월 27일)	10,490 원

신한생각 영업레버리지 확대 임박, 중장기 기업가치 재평가의 시작

피지컬 AI 및 제조업 자동화 수요 폭증에 따라 글로벌 산업용 AI 시장은 24-30F CAGR 44%로 AI S/W 시장 전체(25%)를 웃도는 고성장 전망. 국내 산업용 AI 기업으로 최근 상장한 마키나락스는 상장 당일 시총 1조원 돌파. 이보다 약 1년 먼저 상장한 심플랫폼은 마키나락스와 유사한 매출규모에 시총 600억원대 불과. 국내외 레퍼런스 가속화 국면이며 오버행도 모두 해소되어 저평가 해소 요인 다분. 현 시점부터 관심 필요

앞서가는 기술, 따라오는 레퍼런스

기업가치 재평가 트리거는 Infineon PoC의 본계약 전환. Infineon은 독일 기반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GaN MOCVD(질화갈륨 박막증착) 공정의 이상탐지·예지보전 솔루션을 심플랫폼과 PoC 진행 중. 이후 2028년 4월까지 장기 기술지원 구조로 전환되는 구조. 반도체 업종 특성상 니치 영역(GaN 등)에서 검증 후 볼륨 영역(IGBT, 메모리 등)으로 공정 확산 가능성 다분. 국내 파운드리 기업 웨이퍼 불량분석·CVD 장비 예지보전으로 수율 1% 향상(연 160억 수익 환산) 성과를 냈던 레퍼런스가 수주 배경

ThingDriver 기술 기반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헬스케어·공공 도메인 확장. 추가 센서나 설비 중단 없이 기존 장비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기술로, 마키나락스 런웨이, AWS Sagemaker, 팔란티어 Warp Speed 대비 차별화

Valuation & Risk: 2026년 흑자전환 전망

2026년 영업레버리지 확대로 흑자전환 전망. 25-28F 매출액 CAGR 40%, 26F EV/Sales 5배로, 국내외 Peer 대비 크게 저평가.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하며, 오버행은 모두 해소. 26년 기점으로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 구독형 매출 확대, AX전환 수혜 등 저평가 해소 트리거 충분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4	7.2	(0.1)	(8.0)	-	-	-	-	-
2025	10.4	(2.7)	(2.5)	-	(28.8)	3.7	-	-
2026F	14.8	0.5	0.8	91.0	5.0	4.5	30.0	-
2027F	20.7	3.8	4.0	17.2	23.0	3.5	11.5	-
2028F	28.6	8.6	9.0	7.7	37.4	2.4	4.8	-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AI S/W]

최승환, CFA 연구위원
✉ hani86@shinhan.com

이채운 연구원
✉ cyunee@shinhan.com

Revision	
실적추정치	신규
Valuation	-

시가총액	67.3십억원
발행주식수(유동비율)	6.4백만주(64.1%)
52주 최고가/최저가	17,340원/5,320원
일평균 거래액 (60일)	759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2.5%

주요주주 (%)				
임대권 외 2인	35.4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외 3인	6.5			
수익률 (%)	1M	3M	12M	YTD
절대	18.5	58.5	(11.9)	24.1
상대	28.3	66.8	(43.5)	3.6

주가



I. 기업 개요

산업용 AI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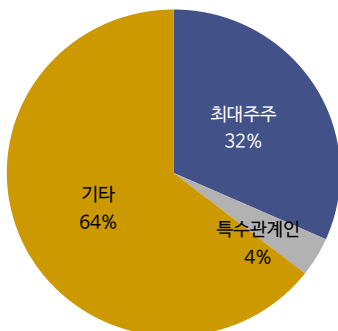
심플랫폼은 2011년 설립된 산업용 AI 기업이다. 2025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국내 1호 B2B AI 상장기업이 되었다. 주력 제품인 NUBISON(누비슨)은 ChatGPT가 등장(2022년)하기 5년 전인 2017년 런칭되었다. 즉 LLM 붐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LLM 위에 산업 솔루션을 엮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심플랫폼의 핵심 제품은 NUBISON AX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예측·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All-in-One 산업용 AIoT 솔루션이며, NUBISON AX(메인 플랫폼), NUBISON SDA(데이터 분석), NUBISON MLOps(모델 운영)의 세 모듈로 구성된다. 산업현장에서 센서, 디바이스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분석하여 예방 정비, 품질 검사, 생산 최적화, 공급망 최적화 등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서비스이다.

수익 구조는 구축형과 구독형으로 나뉜다. 현재는 구축형이 대부분이며, 완성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한다. 4분기 매출 집중 구조가 여기서 비롯된다. KISA CSAP 보안 인증, 경량 범용 모델 구조, 양방향 통신 기반 실시간 모델 업데이트 등 SaaS 구독형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 기반은 갖춰진 상태다.

사업 영역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제조업이 핵심이며, 레퍼런스는 반도체(국내 파운드리 기업), 헬스케어(강남세브란스병원), 스포츠(국가대표 AI 코칭), 농업·축산(전국 도축장 100% 보급 목표), 공공(부산·인천)으로 빠르게 다각화되고 있다. Infineon 등 글로벌 기업향 PoC도 진행중이다.

주주구성(1Q26)



자료: Dart, 신한투자증권

연혁

2011.11	심플랫폼 설립
2013.08	벤처기업 인증
2017.03	NUBISON 플랫폼 런칭
2018.09	과기부 장관 표창(사물인터넷 분야 기술향상)
2021.12	과기부 장관 표창(SaaS형 IoT 및 산업용 AI)
2022.06	산업부 장관 표창
2025.03	코스닥 시장 상장
2025.12	과기부 장관 표창(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심플랫폼 서비스 구조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주요 수주 및 PoC 성과

산업	고객/기관	내용	성과
반도체(글로벌)	Infineon Technologies(독일)	GaN 반도체 제조 공정 산업용 AI 공급	PoC 진행 중
반도체	D사(국내 반도체)	웨이퍼 불량유형 분석, CVD장비 예지보전, 반도체장비 고장예측	수율 1% 향상=연 160억 수익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사	AOI 검사장비 FMM이미지 자동분류 시스템	시간당 생산량 40배 ↑ 연 인건비 360백만원 절감
헬스케어	강남세브란스병원	데이터 ThingDriver 통합,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파편화 환자정보 단일화 다중환자 바이탈 실시간 감지
스포츠	국가대표팀(AI 코칭 솔루션)	Vision AI+시계열 데이터 기반 경기분석, 전략분석	경기영상 분석시간 95% 단축
축산	축산물 품질평가원	소도체 품질예측 및 등급판정 AI	시간당 판정 두수 2배 연 평가비용 16억원 절감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II. 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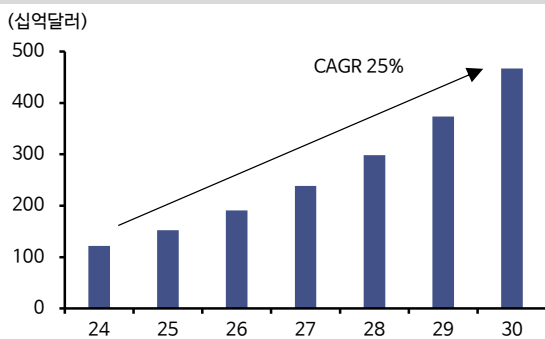
산업용 AI란 무엇인가

AI S/W 시장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산업용 AI

글로벌 산업용 AI 시장은 2024년 53억달러에서 2030년 479억달러로, 연평균 44%의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AI S/W 시장 전체(25%)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성장이다. 전통적인 H/W 중심 제조 라인이 S/W 중심 지능화 단계로 진화하는, 이른바 '피지컬 AI'로 재탄생하면서 기업들의 CapEx가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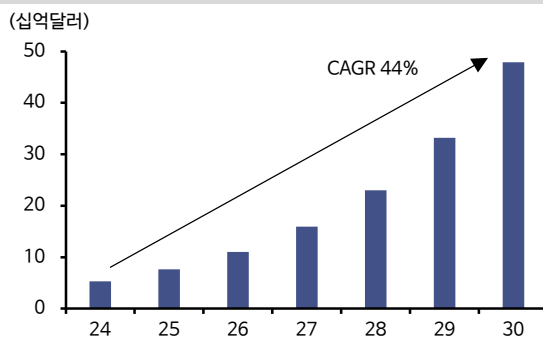
2020→2024년 제조업 취업자는 1.8% 증가했지만 제조업 생산지수는 18.5% 증가했다. 생산이 늘어나는데 제조 인력은 늘리지 않는 흐름이 자동화 투자를 가속화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2026년 정부 AI 투자는 10조원 이상이며, 산업부 제조-산업 AX 예산은 1.1조 원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했다.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에 2,200억원이 투입되고,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팩토리 500개 구축이 목표다. 예지보전, 품질 예측, 공정 최적화, 자율제어 등 풀스택 제조 AI 수요가 본격화된다.

글로벌 AI S/W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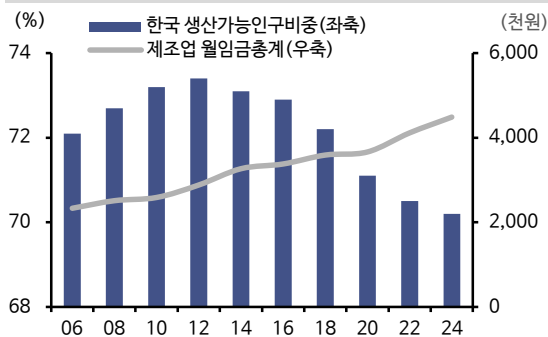
자료: Grand View, MRFR, 신한투자증권

글로벌 산업용(제조업) AI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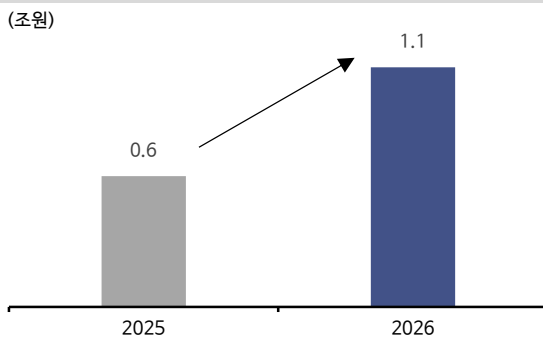
자료: Grand View, MRFR, 신한투자증권

한국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제조업 월임금총계



자료: 통계청, 신한투자증권

산업부 제조/산업 AX 예산



자료: 신한투자증권

산업용 AI의 높은 진입장벽

산업용 AI는 AI S/W 중에서 해자가 가장 뛰어난 범주이다. AI S/W 기업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면 1) 편의성 AI는 텍스트, 이미지를 다루는 챗봇, 코파일럿류다. ChatGPT, 뮌튼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엔터프라이즈 AI는 기업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접목하는 Salesforce, ServiceNow 등이 있다. 3) 산업용 AI는 물리적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범주로, 심플랫폼과 마키나락스가 대표적인 상장기업이다.

산업용 AI 플랫폼 범주의 핵심 특징은 고객 락인과 반복 매출이다. 공장 현장에 AI 플랫폼을 한번 구축하면 해당 플랫폼 위에서 AI 모델이 학습되고, 운영 데이터가 쌓이고, 작업자가 플랫폼에 익숙해진다. 이 상태에서 플랫폼을 교체하면 모델 재학습, 파이프라인 재구축, 운영 중단이 동시에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갱신을 이 높고, 한번 진입하면 관계가 장기화된다.

산업용 AI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신규 진입자와 에이전트에 의한 대체를 차단하며, 기술력 있는 기업에는 해자를 제공한다. 가장 큰 진입장벽은 데이터의 이질성이다. 범용 AI가 다루는 일상 언어와 달리, 산업 현장의 데이터는 초당 수 천 건의 센서 시계열, 공장 설비 PLC 코드, 설비마다 포맷이 다른 공정 로그가 뒤섞여 있다. 이 환경에서 단순 패턴 매칭 방식을 쓰면 비정상 값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더 나아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물성 변화까지 포착하려면 시간 축을 포함한 다차원 복합 함수가 필요하다.

산업 현장은 폐쇄성도 강하다. 반도체 팹, 방산 등 보안이 중요한 첨단 제조 현장은 외부 환경과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현장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만들려면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대체되기 어렵지만 진입도 매우 어려운 구조다.

국내 상장 AI S/W 기업 카테고리 분류

구분	해당기업	역할
산업용 AI	심플랫폼, 마키나락스, 라온파일, 트윈	스마트팩토리, 생산 최적화 등 산업 현장에 특화
LLM/파운데이션 모델	코난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음AI, 바이브컴퍼니	자연어처리, 음성/비전인식 자체 LLM 개발
B2B SaaS	더존비즈온, 한글과컴퓨터, 폴라리스오피스, 토마토시스템	기업용 SW에 AI를 결합하여 생산성 극대화
B2C AI 서비스	이스트소프트, 드림어스컴퍼니	일반 소비자 대상 특화 AI 서비스 제공
AI 데이터 인프라	클라우드웍스, 플리토, 데이터솔루션	AI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 DB구축
경량화/최적화 플랫폼	노타, 아크릴	AI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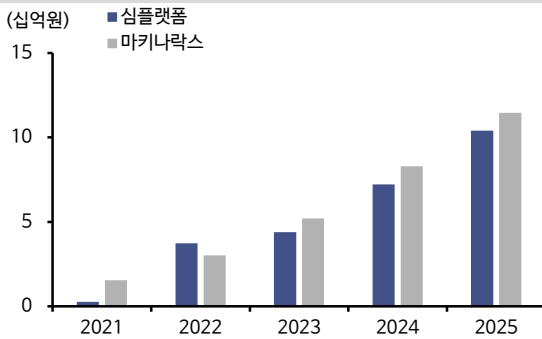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심플랫폼 vs. 마키나락스

심플랫폼과 가장 근접한 Peer 기업인 마키나락스는 2026년 5월 20일 코스닥에 상장하며 단숨에 시가총액 1조원을 상회했다(공모가 기준 시총은 2,600억원). ‘대어’로 평가받은 이유는 제조 AI 분야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국방과학연구소 등 강력한 레퍼런스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삼성SDS, LG CNS 등 캡티브들도 가지지 못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광범위한 TAM을 바탕으로 한 수주 성장, 다수의 대기업 SI투자 유치가 고밸류의 근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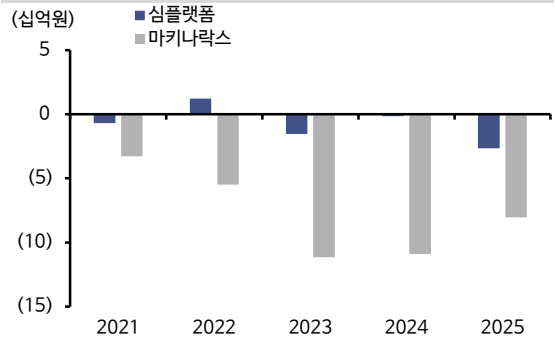
심플랫폼은 마키나락스보다 약 1년 빠른 2025년 3월 21일 상장했다. 공모가 기준 시총은 960억원이며, 현 시총은 이보다 낮은 600억원대다. 두 회사의 매출액은 비슷하고 영업손실은 심플랫폼이 적게 발생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매겨지는 기업가치는 크게 차이나는 상황이다.

매출액 비교: 심플랫폼, 마키나락스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영업이익 비교: 심플랫폼, 마키나락스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마키나락스, 심플랫폼 상세 비교

비교 항목	마키나락스	심플랫폼	우위
설립연도	2017년	2011년	심플랫폼
임직원수(1Q26)	118명	57명	마키나락스
2025 매출액	115억원	104억원	마키나락스
매출 성장률(YoY)	38%	44%	심플랫폼
2025 영업손익	-80억원	-27억원	심플랫폼
2025 EV/Sales	69배	6배	심플랫폼
주력 제품	런웨이(Runway) MLOps OS	NUBISON AX All-in-One	성격 상이
데이터 수집 레이어	파트너 의존	ThingDriver - 추가센서 불필요	심플랫폼
주요 레퍼런스	삼성전자·현대차·SK온 등	반도체·강남세브란스·국가기관	마키나락스
누적 수주(1Q26)	80억원	미공시	마키나락스
BEP 매출	250~260억원	130~140억원	심플랫폼
흑자전환 목표	2027년	2026년	심플랫폼

자료: 신한투자증권

심플랫폼의 저평가 해소 요인들

심플랫폼의 레퍼런스가 약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두 회사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키나락스는 AI 컨설팅으로 레퍼런스 기반을 만들고 플랫폼을 개발했다. 심플랫폼은 이와 반대로, 창립 이후 10년 이상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풀스택 AIoT 플랫폼 개발에 집중했다. 데이터 레이크 확보 기술, 독자 알고리즘, ThingDriver(데이터 수집), NUBISON AX 아키텍처를 먼저 갖춘 뒤 레퍼런스를 쌓기 시작했다. 플랫폼이 갖춰진 상태에서 수주를 확대했기 때문에 수익성(흑자전환) 측면에서는 심플랫폼이 유리하다.

마키나락스는 AI 모델 개발·운영 체계(런웨이)가 핵심이며, 대기업(삼성·현대·SK)과 국방을 주요 타겟으로 했다. 반면 심플랫폼은 IoT 데이터 수집(ThingDriver)과 AI를 동시에 해결하는 End-to-End 접근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부터 헬스케어·농업·스포츠까지 도메인이 넓다. 출발이 늦었을 뿐,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의 레퍼런스가 Infineon으로 이어진 사례는 수주 경쟁력이 높다는 증거이다.

심플랫폼은 인위적인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 서두르는 회사가 아니었다. 우수한 로직이 PoC를 통해 입증되어 자연스럽게 수주가 따라오는 구조다. 2025년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돌파한 이후 레퍼런스 누적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기술 기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산업용 AI 솔루션 비교

업체	데이터 수집	모델 개발	배포·운영	커버리지 범위	차별점
심플랫폼 NUBISON AX	○(ThingDriver)	○	○	Step 1~3 완전통합	IoT+AI 통합, 폐쇄망·이기종 대응
마키나락스 런웨이	△(파트너 의존)	○	○	Step 2~4 통합	MLSecOps·폐쇄망·국방 특화
AWS SageMaker	△	○	○	Step 2~3 (클라우드)	클라우드 전제, 폐쇄망 불가
팔란티어 Warp Speed	△	○	○	Step 2~4 (혼합)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고비용
지멘스 MindSphere	○(자사장비)	△	△	Step 1~2 부분	자사 설비 종속, SW 플랫폼 약함

자료: 신한투자증권

III. 투자포인트

앞서가는 기술, 따라오는 레퍼런스

글로벌 반도체 레퍼런스 확대

기업가치 재평가 트리거는 Infineon PoC의 본계약 전환이다. Infineon은 독일 기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자동차·산업용 반도체 부문에서 글로벌 Top Tier다. PoC 대상은 Infineon의 GaN MOCVD(질화갈륨 박막증착) 공정의 이상탐지·예지보전 솔루션이다. 계약 구조는 PoC 3개월 진행 후 2028년 4월까지 장기 기술 지원 구조로 전환된다.

수주의 배경은 국내 파운드리 기업 웨이퍼 불량분석·CVD장비 예지보전으로 수출 1% 향상(연160억원 수익 환산) 성과를 낸 덕분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메이저의 제조 공정에 산업용 AI를 공급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반도체 업종 특성상 니치 영역(GaN 등)에서 검증 후 볼륨 영역(IGBT, 메모리 등)으로 공정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수주 대형화 가능성도 충분하다.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향 FMM 불량검사 솔루션 공급은 도메인 다각화의 사례다. AOI 검사장비와 결합하여 non-stop, 실시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당 생산량 40배 증가, 연 인건비 360백만원 절감을 달성했다. 사람이 검수하던 공정을 AI 기반으로 구현하여 수출, 속도 모두 개선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 수주 사례

반도체 공정

웨이퍼 불량유형 분석
CVD 장비 예지보전
반도체 장비 고장 예측



웨이퍼 / 공정설비

- **AI 적용** - 패턴분류 / 예측 / 최적화
비전 검사 기반 반도체 불량 유형 분석
시계열 데이터 기반 제조 공정 이상상태 예측/판정
- **적용효과**
수출 1% 향상을 통한 재료 생산성 증가
(수익 환산 시 연간 160억)

전체 제조 환경의 지능화를 실현하는 인공지능 전환

디스플레이 공정

AOI 검사장비
진성/가성 결합 분류



AOI 검사장비

- **AI 적용** - 불량감지
머신비전 기반 FMM 이미지 자동분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검사 최적화
- **적용효과**
시간당 생산량 40배 증가 (2,700개→108,000개)
연간 인건비 360백만원 절감

사람이 직접 검수하던 검사공정을 AI 기반의 자동분류 시스템으로 구현

자료: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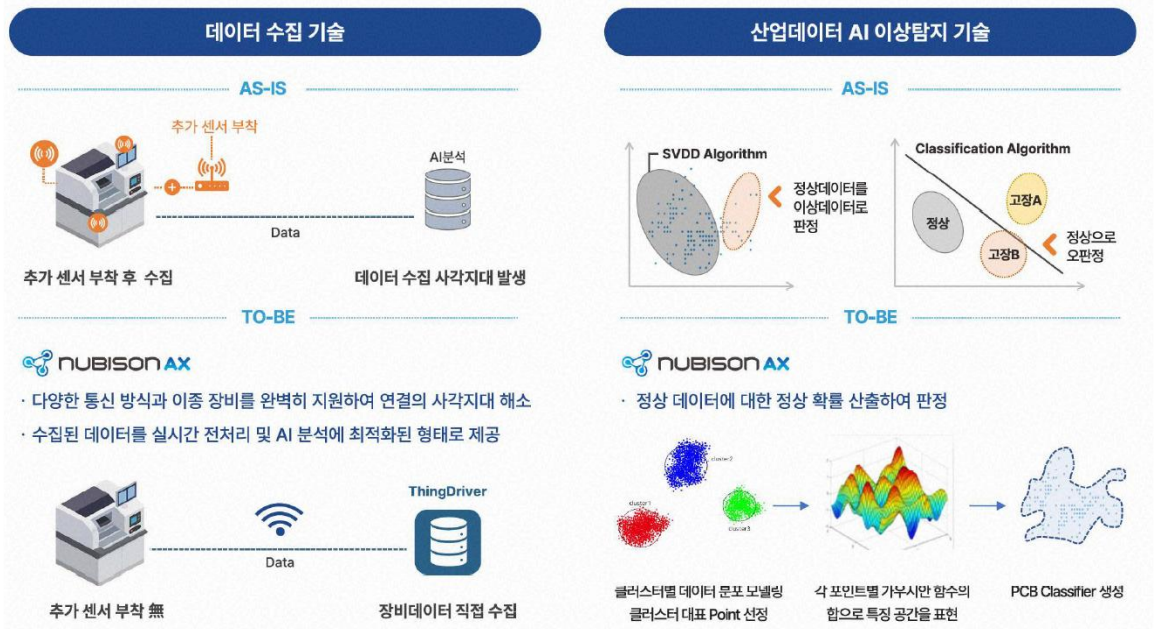
ThingDriver, NUBISON AX 기술의 무한 확장

ThingDriver는 추가 센서 없이 기존 장비의 통신 프로토콜을 직접 해석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공장 현장에서 추가 센서 설치의 설비 중단을 수반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hingDriver는 이 제약을 우회한다. 설비 중단 없이 이기종 장비를 동시에 연결하고 데이터 시각화대를 없앤다.

ThingDriver 기술은 범용성이 높다. 제조현장 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의료 기기 데이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에 기술이 적용됐다. GE·메드트로닉 등 제조사 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의료데이터를 하나로 연동했고, 파편화된 환자 정보를 단일 화면에 통합 시각화한 사례다. 소스의 다양성을 포용 가능한 원천기술이 없는 단순 SI 업체가 할 수 없는 작업이다.

ThingDriver와 결합한 NUBISON AX는 특정 산업 타겟이라기보다 로직 자체에 경쟁력이 있는 범용 복합 모델이다. 특정 산업에 맞게 무겁게 설계한 알고리즘은 도메인 확장 시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인력을 새로 뽑아야하지만 NUBISON AX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축산 등 도메인 확장이 쉽다. 현재 13가지 산업 AI 패키지를 하나의 알고리즘 코어에서 개발해 제공 중이다.

ThingDriver, AI 이상탐지 기술 원리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구독 전환과 정부 AX 정책 수혜

심플랫폼의 매출은 현재 대부분 구축형 서비스로부터 발생한다. 구독형(SaaS) 전환 준비는 완료된 상태다. 가장 수준 높은 KISA CSAP 보안 인증, 경량 범용 모델 구조, 양방향 통신 기반 기술은 이미 확보됐다. SaaS 매출이 쌓이기 시작하면 4분기 매출 집중 구조도 완화될 수 있어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다.

정책 수혜도 뒷받침된다. 2026년 산업부 제조·산업 AX 예산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2,200억원, 산업단지 AX 전환 예산 4,099억원이 편성됐으며,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심플랫폼의 주요 고객층인 중견·중소 제조사와 공공부문이 이 예산의 직접 수혜 대상이다.

정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세부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 과제수	지원 기간(개월)	지원 한도(억원)	지원비율 (%)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① 스마트공장 구축	정부형	265	9	2.0	50	'25.11	'25.11~'26.1	'26.1~3
	부처협업형	150	9	2.0	50	'26.2	'26.2~3	'26.3~7
	지역특화형	미정	9	2.0	50	'26.2	'26.2~3	'26.4~
	레전드50+	50	9	5.0	50	'26.2	'26.2~3	'26.4~
	도약(Jump-Up)	10	9	5.0	50	'26.4	'26.4~5	'26.6~
	자율형공장	30	24	6.0	50	'25.11	'25.11~'26.1	'26.1~5
	제조AI특화	400	9	2.0	50	'26.3	'26.3~4	'26.5~7
	대중소상생형	250	9	1.2	30	'26.3	'26.3~4	'26.5~
	상생형 AI트랙	20	9	5.0	50	'26.3	'26.3~4	'26.5~
	디지털협업공장	6	12	10.0	50	'25.11	'25.11~'26.1	'26.1~3
	R&D성과확산	20	12	5.0	50	'25.12	'26.2	'26.3
② 자동화 지원	제조로봇도입	180	8	2.5	50	'25.12	'25.12~'26.1	'26.1~3
	자동화공정구축	127	8	0.95	50	'25.12	'25.12~'26.1	'26.1~3
③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2,000	-	0.01	100	'26.1	상시	상시
④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단독형	7	8	2.5	50	'25.12	'26.1~2	'26.2~4
	통합형	1	12	8				
⑤ 공급기업 역량진단		775	-	0.01	80	'26.3	'26.3~4	'26.4
⑥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사전기획	500	3	0.02	85	'25.12	상시	상시
	구축지도	400	3	0.01				
	AX기획	200	3	0.05				
	사후관리	210	4	0.19			50	'26.2~3
⑦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45	24	30	80	'25.12	'26.1	'26.2
⑧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	-	-	-	'25.11	'25.11~12	'25.12~'26.1
⑨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25	4	0.5	80	'25.12	'25.12~'26.1	'26.2~3
⑩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신규	150	6	0.5	50	'26.3	'26.5	'26.6
	고도화	25	6	1				
⑪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12	6	3	75	'26.상	미정	미정
⑫ 표준공정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R&D)	현장진단	4	6	4.36	100	'26.2	'26.2~3	'26.4
	R&D	10	24	10	75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내 선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한투자증권

IV. 실적 및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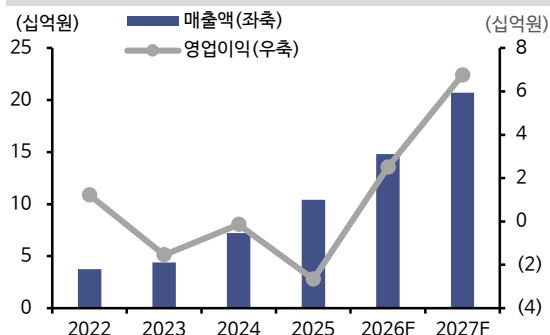
2026년 흑자전환 전망

2026년 매출액 148억원(+42.3% YoY), 영업이익 5억원(흑전)을 전망한다. 다수 PoC의 본계약 전환, 주요기업 생산 자동화 CapEx 수요가 맞물려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매출액 104억원(+43.8% YoY), 영업손실 27억원을 기록해 경쟁사 대비 영업손실폍이 작다. 이미 개발된 플랫폼의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주목할 점은 계절성이다. 완성 기준 매출 인식 특성상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된다. 2025년에도 4분기 매출액이 75억원으로 연간 실적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1~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보이는 이유이므로, 분기 실적보다 수주 추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1Q26 신규수주 41억원, 수주잔고 36억원이다. 1분기는 PoC 계약(건당 수천만원)의 비중이 높고 3분기경 본계약(건당 5~10억원)으로 전환됨을 감안하면, 수주 추이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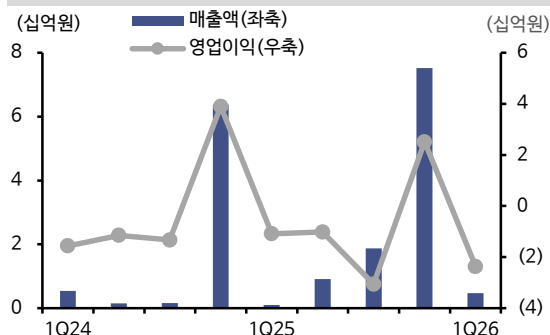
2025년 기준 순현금은 85억원, 부채비율은 32%로 재무상태는 양호하다. 올해 이후 흑자기조 유지가 예상되어, 자금 조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 매출, 이익 전망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분기별 실적은 4분기에 강한 계절성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4	7.2	10.4	14.8	20.7
YoY	17.4	64.7	43.8	42.3	40.0
영업이익	(1.5)	(0.1)	(2.7)	0.5	3.8
YoY	적전	적지	적지	흑전	643.2
Margin	(35.1)	(1.9)	(25.6)	3.4	18.2
당기순이익	(1.2)	(8.0)	(2.5)	0.8	4.0
YoY	적전	적지	적지	흑전	429.6
Margin	(27.1)	(110.9)	(24.3)	5.1	19.4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글로벌, 국내 Peer 대비 극심한 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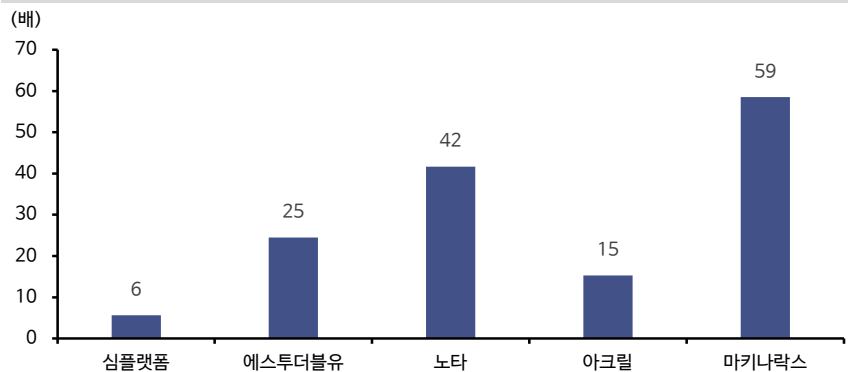
2026년 “Rule of 40” 45.7

심플랫폼의 2025년 EV/Sales는 6배로, 최근 1년 상장한 국내 AI 관련주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Rule of 40”(매출성장률+영업이익률)는 2025년 실적 기준 18.3으로 국내 S/W 기업 중 상위권이며, 2026년 추정치 기준 매출성장률 42.5%, 영업이익률 3.4%로 40을 넘어선다. 2026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 구독형 매출 확대, AX전환 수혜 등 저평가 해소 트리거는 충분하다.

해외 AI S/W 기업은 평균적으로 2025-2028F 매출 CAGR 20%, 2026F EV/Sales 15배 수준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심플랫폼의 당사 추정치 기준 2025-2028F 매출 CAGR 40%, 2026F EV/Sales 5배로, 성장성 대비 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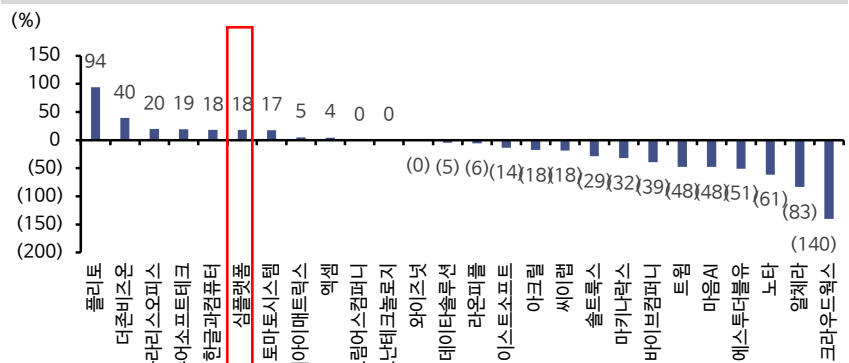
주가는 공모가(15,000원)를 여전히 하회한다. 유통가능물량(오버행)은 상장 당일 37.1%(기관 27.8%), 1개월 12.7%, 3개월 13.1%이다. 3개월 락업 해제시점을 전후로 오버행은 대부분 소화되었으며 현재는 점진적인 반등 국면에 있다.

상장 1년 이내 AI S/W 기업 2025 EV/S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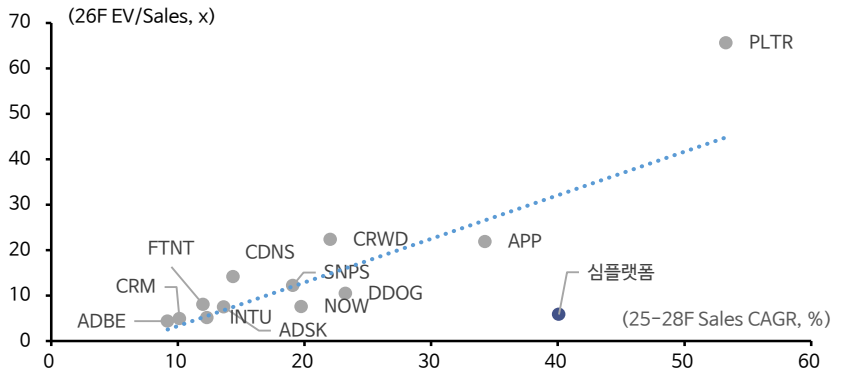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국내 AI S/W 기업 2025년 Rule of 40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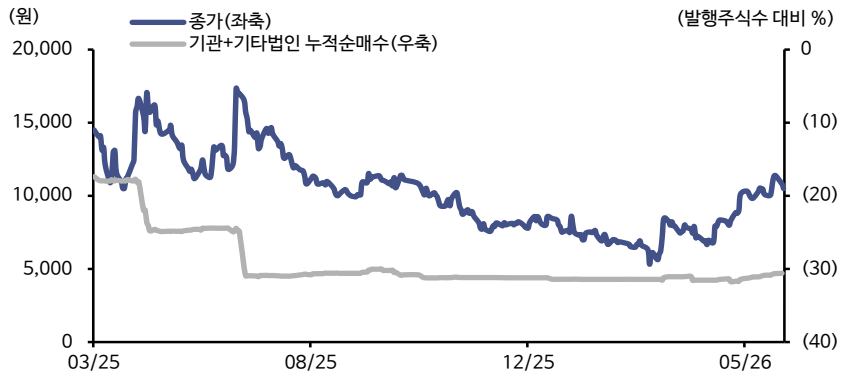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글로벌 Peer valuation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상장 이후 수급현황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재무상태표

12월 결산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자산총계	7.3	19.5	22.2	28.9	41.4
유동자산	5.7	15.1	18.9	26.1	38.9
현금및현금성자산	0.5	5.2	5.7	8.6	15.6
매출채권	3.2	3.4	4.8	6.7	9.3
재고자산	0.0	0.0	0.0	0.0	0.0
비유동자산	1.6	4.4	3.3	2.7	2.5
유형자산	0.1	0.3	0.2	0.2	0.2
무형자산	1.1	3.0	1.7	1.0	0.6
투자자산	0.2	0.4	0.5	0.7	0.9
기타금융투자자산	0.0	0.0	0.0	0.0	0.0
부채총계	4.5	4.7	6.7	9.2	12.7
유동부채	3.4	3.1	4.4	6.1	8.4
단기차입금	2.0	0.0	0.0	0.0	0.0
매입채무	0.4	1.8	2.6	3.6	5.0
유동성장기부채	0.0	0.0	0.0	0.0	0.0
비유동부채	1.2	1.7	2.3	3.1	4.3
사채	0.0	0.0	0.0	0.0	0.0
장기차입금(경기금융부채 포함)	0.0	0.2	0.2	0.2	0.2
기타금융투자부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2.8	14.8	15.6	19.6	28.6
자본금	2.6	3.2	3.2	3.2	3.2
자본잉여금	13.8	29.3	29.3	29.3	29.3
기타자본	2.8	1.3	1.3	1.3	1.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0	0.0	0.0	0.0	0.0
이익잉여금	(16.4)	(19.0)	(18.2)	(14.2)	(5.1)
지배주주지분	2.8	14.8	15.6	19.6	28.6
비지배주주지분	0.0	0.0	0.0	0.0	0.0
*총차입금	2.1	0.7	0.9	1.2	1.6
*순차입금(순현금)	1.6	(8.5)	(10.5)	(15.4)	(25.0)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0)	(0.8)	2.4	5.2	10.0
당기순이익	(8.0)	(2.5)	0.8	4.0	9.0
유형자산상각비	0.2	0.2	0.2	0.2	0.2
무형자산상각비	0.2	0.4	1.2	0.7	0.4
외화환산손실(이익)	0.0	0.0	0.0	0.0	0.0
자산처분손실(이익)	0.0	0.0	0.0	0.0	0.0
지분법, 종속, 관계기업손실(이익)	0.0	0.0	0.0	0.0	0.0
운전자본변동	(2.5)	0.8	0.1	0.2	0.3
(법인세납부)	0.0	(0.0)	0.0	0.0	0.0
기타	8.1	0.3	0.1	0.1	0.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0.5)	(6.8)	(2.0)	(2.6)	(3.4)
유형자산증가(CAPEX)	(0.0)	(0.2)	(0.2)	(0.2)	(0.2)
유형자산감소	0.0	0.0	0.0	0.0	0.0
무형자산감소(증가)	(0.5)	(2.3)	0.0	0.0	0.0
투자자산감소(증가)	0.0	(0.1)	(0.1)	(0.2)	(0.2)
기타	0.0	(4.2)	(1.7)	(2.2)	(3.0)
FCF	(2.3)	(1.7)	1.3	3.9	8.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1	12.2	0.2	0.3	0.4
차입금증가(감소)	2.0	(2.0)	0.2	0.3	0.4
자기주식처분(취득)	0.0	0.0	0.0	0.0	0.0
배당금	0.0	0.0	0.0	0.0	0.0
기타	0.1	14.2	0.0	0.0	0.0
기타현금흐름	0.0	0.0	0.0	0.0	0.0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증가	0.0	0.0	0.0	0.0	0.0
환율변동효과	0.0	0.0	0.0	0.0	0.0
현금증가(감소)	(0.5)	4.7	0.6	2.9	6.9
기초현금	1.0	0.5	5.2	5.7	8.6
기말현금	0.5	5.2	5.7	8.6	15.6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포괄손익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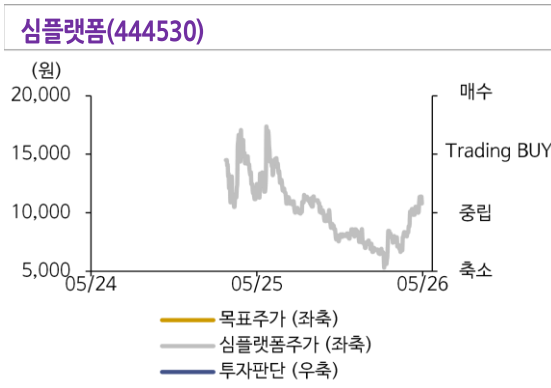
12월 결산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7.2	10.4	14.8	20.7	28.6
증감률 (%)	64.7	43.8	42.3	40.0	38.0
매출원가	0.0	0.0	0.0	0.0	0.0
매출총이익	7.2	10.4	14.8	20.7	28.6
매출총이익률 (%)	100.0	100.0	100.0	100.0	100.0
판매관리비	7.4	13.1	14.3	17.0	20.0
영업이익	(0.1)	(2.7)	0.5	3.8	8.6
증감률 (%)		적지	확전	643.2	129.1
영업이익률 (%)	(1.9)	(25.6)	3.4	18.2	30.2
영업외손익	(7.9)	0.1	0.3	0.3	0.4
금융손익	(7.9)	0.1	0.3	0.5	0.7
기타영업외손익	0.0	0.0	(0.1)	(0.2)	(0.3)
종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0.0	0.0	0.0	0.0	0.0
세전계속사업이익	(8.0)	(2.5)	0.8	4.0	9.0
법인세비용	0.0	0.0	0.0	0.0	0.0
계속사업이익	(8.0)	(2.5)	0.8	4.0	9.0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8.0)	(2.5)	0.8	4.0	9.0
증감률 (%)	적지	적지	확전	429.6	123.4
순이익률 (%)	(110.9)	(24.3)	5.1	19.4	31.5
(지배주주)당기순이익	(8.0)	(2.5)	0.8	4.0	9.0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0.0	0.0	0.0	0.0	0.0
총포괄이익	(8.2)	(2.6)	0.8	4.0	9.0
(지배주주)총포괄이익	(8.2)	(2.6)	0.8	4.0	9.0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0.0	0.0	0.0	0.0	0.0
EBITDA	0.3	(2.0)	2.0	4.7	9.3
증감률 (%)	확전	적전	확전	139.5	97.0
EBITDA 이익률 (%)	4.0	(19.0)	13.3	22.7	32.4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	2024	2025	2026F	2027F	2028F
EPS (당기순이익, 원)	-	(415)	119	629	1,405
EPS (지배순이익, 원)	-	(415)	119	629	1,405
BPS (자본총계, 원)	-	2,315	2,423	3,052	4,458
BPS (지배지분, 원)	-	2,315	2,423	3,052	4,458
DPS (원)	-	-	-	-	-
PER (당기순이익, 배)	-	-	91.0	17.2	7.7
PER (지배순이익, 배)	-	-	91.0	17.2	7.7
PBR (자본총계, 배)	-	3.7	4.5	3.5	2.4
PBR (지배지분, 배)	-	3.7	4.5	3.5	2.4
EV/EBITDA (배)	-	-	30.0	11.5	4.8
배당성향 (%)	-	-	-	-	-
배당수익률 (%)	-	-	-	-	-
수익성					
EBITDA 이익률 (%)	4.0	(19.0)	13.3	22.7	32.4
영업이익률 (%)	(2.0)	(25.6)	3.4	18.2	30.2
순이익률 (%)	(111.0)	(24.3)	5.1	19.5	31.5
ROA (%)	(117.5)	(18.9)	3.6	15.8	25.7
ROE (지배순이익, %)	(1,583.2)	(28.8)	5.0	23.0	37.4
ROIC (%)	(3.9)	(45.6)	8.2	65.4	146.8
안정성					
부채비율 (%)	161.8	32.0	42.8	47.2	44.3
순차입금비율 (%)	57.3	(57.2)	(67.5)	(78.4)	(87.4)
현금비율 (%)	15.7	169.1	132.0	141.6	185.9
이자보상배율 (배)	(0.9)	(70.8)	23.2	131.4	228.5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2.7	2.8	4.1	5.0	5.9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	-	-	-	-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164.4	116.3	101.0	101.7	102.3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차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원)	과리율 (%)	
			평균	최고/최저

주: 목표주가 괴리율 산출 기간은 6개월 기준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승환, 이재운)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터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신한투자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6년 05월 26일 기준)

매수 (매수)	88.64%	Trading BUY (중립)	7.95%	중립 (중립)	3.41%	축소 (매도)	0.00%
---------	--------	------------------	-------	---------	-------	---------	-------